먼저 운전자(사용자)는 카메라를 통해 운전자(사용자)의 눈을 감지합니다. 눈에 찍힌 랜드마크를 통해 구한 EAR 값이 낮아졌을 때 눈 감김(EAR < 0.21)을 인식합니다. 이 때 눈 감김이 약 2~3초(count ≥ 10) 이상 지속이 되면 졸음으로 판단해 운전자(사용자)에게 경고를 줄 수 있도록 부저를 울려 알립니다.

먼저 CO2 센서는 카메라가 작동이 원활하지 않거나 눈 인식을 잘 못하고 있을 때를 대비하여 제2의 방법을 도입한 방안입니다. CO2 센서는 3초 간격으로 차량 내의 CO2 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. 이 때 센서에서 측정된 CO2 ppm 농도가 2500 이상이 측정되었을 시 스피커를 통해 “창문을 개방하여 환기시켜주세요.” 라는 문구를 음성 출력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